

# 인천적십자결핵요양원

## —전형적 사나토름요법과 최신의학의 공존—

김 대 규 / 대한결핵협회 부회장

풍광이 빼어난 인천적십자요양원은 여러차례 영화촬영의 명소가 되기도 했다. 넓은 잔디밭과 송림 너머로 염전이 펼쳐져 있고, 수인선 협궤기차가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목가적인 풍경은 요양자에게 안식과 평화를 안겨 주었다.

### 1940년에 설립

인천적십자결핵요양원은 연수장(延壽莊)이라는 이름으로 1940년 12월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에 의해 설립, 개원되었다.

1938년 인천의 관광명승지 송도 근처의 경기도 부천군 문학면 연수리(富川郡 文鶴面 延壽里 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 3동 580-3번지)에 부지 32,000평을 매입하고 30만엔(圓)의 공사비로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전평은 800평이었다. 초대 원장은 경성적십자병원의 일본인 원장이 겸직으로 근무했으며, 일본인 환자를 주로 입원시켰으며 제대군인, 징병검사시 발견된 환자, 교원,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였다. 입원료는 하루에 특실은

12엔(圓), 8인실은 3엔(圓)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그 해 10월 17일 미군정청의 적십자 담당자가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로부터 요양원을 접수하였으며 그 후 약 9개월간 공백기로 있다가 1946년 7월 1일부터 환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1949년 4월 대한적십자사로 재조직됨에 따라 1949년 7월 1일자로 손금성(孫金聲) 서울적십자병원장이 원장 겸직발령을 받았으며 그 후 미국 적십자사로부터 환자용 침구 75개, 엑스선 기계 1대를 기증받는 외에 검사실, 수술실 시설도 보완하였다.

1949년 당시 이 요양원의 진료상황을 보면, 의사 3인, 간호원 6인이 있었고, 국립마산결핵요양원의 의무관으로 있다가 1948년 이 요양원 의무과장으로 부임한 변해원(邊海元) 박사가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인공기흉술도 시술하였다. 입원실 수용인원은 75명정도였다.

### 6.25 동란으로 제주도 피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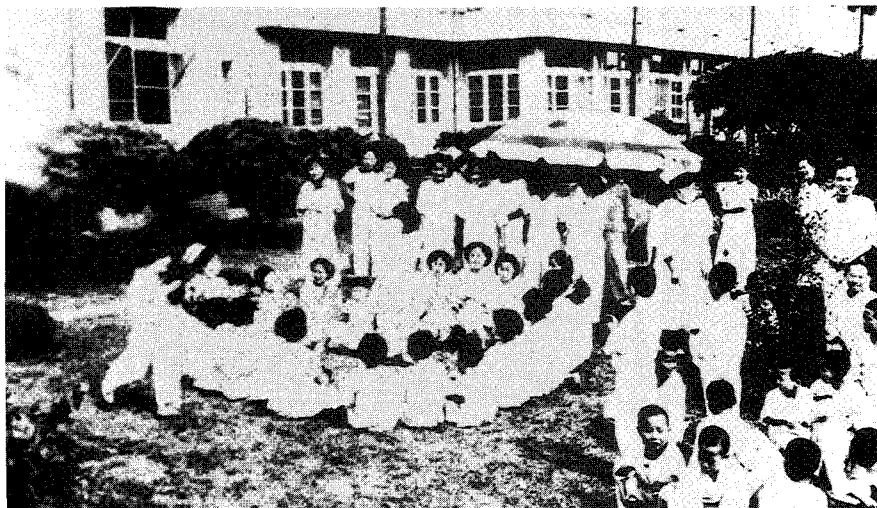
1950년 7월 1일은 개원기념일임으로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준비하던 차에 6.25를 겪게 되었다. 서울적십자병원에 인민군이 침입한 후로는 이과포의 통신과 인사왕래는 자연히 두절되었다. 입원환자중 대다수는 도피했으나 일부는 공산측에 가담하였고, 근처 송도에 살던 남로당계 의사 한 사람이 와 이 요양원을 관리하였다.

1950년 8월 15일 UN군의 인천상륙으로 경기도가 먼저 수복되자 일부 직원이 돌아와서 시설보호에 종사하던 중, 12월 UN군의 후퇴로 정세가 다시 악화됨에 따라 서울병원과 협의하여 제주도 서귀포로 옮겨 개원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본 요양원 직원 5명은 1953년 7월 13일 서울적십자병원이 서울로 완전히 복귀할 때까지 진료와 운영을 계속했다.

변해원박사는 인공기흉기 하나 달랑 들고 제주도로 피난을 떠났는데 그 덕에 환자치료는 지장없이 계속할 수 있었으며 그런 사연이 얽힌 인공기흉기는 변박사가 1993년 전시용으로 결핵협회에 기증하였다.

제주도 서귀포에 피난 중 인천 송도(松島)에 주둔했던 영국군은 이 요양원을 군인 휴양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휴전이 된 1953년 7월 대한적십자사로 반환되면서 부산의 한국민사원조처(KCAC) 본부와 교섭하여, 전쟁고아환자를 위한 시설로 1953년 8월 21일 다시 개원하였다. 전쟁고아 결핵아동 22명을 입원시키고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경기도 내에 산재한 각 보육원의 어린이들을 진찰하여 발견된 4세-15세 남녀 결핵환자



▲ 1957년. 인천적십자요양원 병동앞 정원에서 유희를 즐기는 어린이환자들. 6·25동란후 이 요양원에서는 전쟁고아 결핵어린이환자만을 수용해서 무료로 치료했다.

를 수용, 치료하게 되었다.

### 고아환자에게 초등교육 실시

이같이 어린이들만 전적으로 치료하는 가운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원조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1954년 11월에는 이미 입원환자가 200명이 넘어 구 세탁장을 격리 병실로 보수하였으며 환자를 집기와 탁자, 책상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나갔다.

그리고 어린이 환자가 모두 학령기 아동이므로 1954년 3월부터는 유자격 여교사 2명을 채용하고 국민학교 교과서로 초등교육을 실시했다. 이로써 요양하면서 학교수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농장경영면에 있어서는 3,515평의 논과 6,324평의 밭을 자작농으로 경작하여 연 30가마의 쌀과 채소를 수확하였고, 김장용 무, 배추도 경작하여 서울 적십자병원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외국 적십자사와의 교류와 원조도 꾸준히 이어졌는데 1953년 9월부터 1955년 4월까지의 영국적십자사에서 구호반으로 파견된 Jorden과 Deadman 간호원들이 매주 교대로 이 곳에 와서 임상간호를 실시하면서 우리 간호원들에게 시범을 보여주었고, 원조물자로서 빈민구제사업도 시행하였다. 또 캐나다청 소년적십자에서 현금지원을 했으며 미국 적십자사는 이곳에 대표를 파견하여 1957년 7월부터 1958년 6월까지 1만불을 기부하였다.

### 수준높은 연구와 진료성과

6.25 휴전이후 이 요양원의 시설은 꾸준히 확충되고 복원되었는데 1958년 서울대의대 교수로 있던 송호성(宋浩星) 박사가 2대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요양원은 하루가 다르게 면모를 일신해 갔다. 그 당시에는 전후의 질서도 회복되어 전쟁고아들도 성장하고 결핵아동도 줄었기 때문에 요양원은 성인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학구적인 홍영표(洪永杓) 의무국장과 함께 주로 초치료에 실패한 환자에 대한 재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이에따라 재치료 원칙확립과 치료성적 향상에 공헌하였다. 그리고 교통, 통신의 편리를 위하여 요양원 앞의 길을 넓히고 인천시와 교섭하여 수인선(水仁線) 송도역으로부터 요양원까지의 도로를 보수하였다.

또한 병실의 증개축과 함께 정원을 3,000 평으로 늘리고 잔디와 옥향나무 등을 심어 대저택의 정원처럼 아름답게 꾸며 여러차례 영화촬영장소가 되기도 했다. 잔디밭과 송림 너머로 염전이 펼쳐져 있고 수인선 협궤기차가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목가적인 풍경은 요양자에게 안식과 평화를 안겨주었다.

이와같은 병실 증·개축과 조경 등 환경개선은 1966년에 뉴질랜드 적십자사의 기부금과 본사 보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월미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공병대의 장비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 요양원의 자랑거리인 일급주방장이 조리하는 급식이었는데 유명호텔의 음식 맛 못지않아 환자, 보호자들에게 아주 평판이 좋았다.



▲ 1960년 인천직식자요양원 정원에서 개최된 결핵집담회에 참석한 결핵협회 임원들. 앉은 사람이 鄭求忠 제 4대 결핵회장, 선 사람중 좌로부터 玄圭煥 제3대 결협 서울지부장, 宋浩星 인천직식자요양원장겸 결협감사, 李在珪 결협이사.

송호성원장은 시설확충과 조경공사 외에도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고 진료와 검사, 특히 Youmans 액체배지에 의한 결핵균약제감수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검사성적의 향상에 진력했으며 전국결핵 학술대회와 집담회를 유치개회하는 등의 학술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리고 송원장은 부평 소재 미8군 121 야전병원 스텝들과 긴밀하게 교우하면서 의료지원, 특히 흉부외과팀의 협조로 폐절제 수술도 시행하였다.

1979년부터는 아동무료입원제도를 폐지하여 1980년에는 명칭을 인천직식자결핵요양병원으로 바꾸고 결핵과(結核科) 전공의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게 됐다.

그러나 점차 입원환자가 감소하여 운

영이 어려워지던중 1991년 도시계획에 따라 32,000평의 토지중 토지개발공사에 10,000여평의 땅을 수용당하여 그 아름답던 정원이 뚝 잘리어 큰 도로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주변에는 대단위 아파트군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어지고 입지조건도 나빠져 1996년 6월 5일 인천결핵요양병원은 마침내 문을 닫았다. 이 자리엔 인천 시내에 있던 인천직식자병원이 이전하여 일반종합병원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

이로써 1940년에 연수장(延壽莊)으로 출발하였던 인천직식자요양원은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시대의 물결에 떠밀리어 마침내 56년 역사의 막을 내렸다. 卍